

‘전기차 메카’ 광주 ‘GM 파고’ 넘어라

군산시, GM 공장 폐쇄에
미래차 개발 우선권 요구
광주만의 전략 마련 시급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광주의 최대 현안인 전기차 생산 기업 유치에 영향 미칠 것으로 우려가 제기돼 광주시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올 상반기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를 통해 전기차 생산 대기업 유치를 계획하지만 군산시가 최근 정부에 “미래차 개발 우선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GM 군산공장 노조도 “구조조정 등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화했다. 특히 최근 열린 군산지역 토론회에서 “우리가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도입해 전기차 업체를 유치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전기차 생산업체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내 지자체간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정부와 군산시 등이 여러 차례 만나 전기차 유치 등이 포함된 다양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22일 전북도지사와 부지사 등은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군산공장에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우선권 부여와 새만금특별법 조속 추진 등을 요청했다. 군산시의 ‘미래차 개발 우선권’ 요청은 일종의 ‘호수식 전기차 도입 방식’을 통해 기존의 자동차 공장 폐쇄 피해를 줄이자는 방안이다.

호주 정부는 GM이 운영하던 남호주 엘리자베스 공장을 영국 자본이 매입한 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려 하자 적국 지원했다. 또 지난 2010년 GM이 버리고 떠난 미국 누미공장을 미국 테슬라가 인수한 사례도 있다.

특히, 그동안 강경 입장을 유지했던 GM 군산공장 노조도 “근로자의 더 많은 희생과 양보를 원한다면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짝발 물러났다. 사실상 전기차 생산 대기업 유치를 목전에 둔 광주시와 똑같은 전략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군산지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올해는 GM 사태까지 겹쳐 지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업 결정 등에 따른 위기가 전북·군산시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군산지역의 급박한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광주지역보다 전기차 유치가 더 시급하다는 전북 내 여론도 나오고 있다. 군산지역은 새만금 등 유류부지가 많고 군산항 등 물류시설을 갖춘 점도 광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도 군산시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기차 기업 유치를 총괄하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는 “군산 GM 공장 폐쇄는 광주의 전기차 기업 유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군산의 경우 GM 노조의 고용승계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광주는 ‘광주형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광주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특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법 지각 처리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확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확정 시한(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시·

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97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또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13명→16명)를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의 상한(41명→43명)을 높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애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월 28일)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개정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반도의 봄, 평화가 핀다



평양의 남과 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 속소인 고방산 초대소에서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영접을 받고 방북 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북 특사단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연합뉴스

정의용 특사단 김정은 위원장 접견·만찬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비핵화·정상회담 등 협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5일 오후 평양에 도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 회동을 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과 만찬을 오후 6시부터 진행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오후 1시 50분경 특별기로 성남시

울공항공을 출발했던 특사단은 오후 2시 50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특사단은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의 기내 영접을 받았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과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공항에 마중나와 특사단을 맞이했다. 특사단과 리 위원장, 맹 부부장 등은 공항 귀빈실에서 10분간 환담을 했다. 이어 오후 3시40분 속소인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한 특사단은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특사단과 김 부위원장 등은 이곳에서 15분가량 방북일정을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접견과 만찬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수석특사인 정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비핵화를 주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방북 길에 오르기 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동계를

림박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긴요한 남북 간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사단은 6일 오후 귀환할 예정이며, 정 실장과 서 실장은 이번 주 내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남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정부는 남북 및 방미 결과를 중국과 일본 등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구도 안갯속

이춘석 총장 ‘현역 의원 자제’

이개호 의원 ‘주내 입장 정리’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춘석 사무총장이 5일 “후반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가능한 한 현역의원의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다”고 밝혀 전남지사후보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한 뒤 “현실적으로 현역의원이 출마 가능한 숫자를 2명 정도

로 보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3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장은 “현역의원 출마를 자제시키기 위해 개별 의원들과 직접 만나 설득을 하고 있다”며 “대다수 의원들은 우리당이 1당 지위를 상실할 지경에 있다면 출마 포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상당부분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총장은 이개호(전남)·이상민(대전)·양승조(충남) 의원 등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 몇몇을 직접 만나 출마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출마 포기 압력이 거세지면서 이개호 의원은 “당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지지자들의 (출마 포기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며 “이번 주 중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면 서 당 안팎에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전략공천 등의 방식을 통해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인란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평화당과의 호남지역 선거연대 문제 등

에 대해 “공식 논의한 바 없으나 개인적으로 볼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지방선거 누가 뭐냐

강진군수·함평군수

▶5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ANITSUIT

Lifetime Value Creator

맨잇슈트는 롯데 Only 브랜드입니다.
맨잇슈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오픈 기념 PROMOTION
- 03.09(화) ~ 03.25(일) -

울100% 신상품 정장 2벌 35만원

(동시 진행)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 롯데아울렛 남약점

Smart Factory | 맨잇슈트는 미국, 캐나다, 일본 1위 신사복 회사에 수출하는 PT Kwangduk Worldwide Co., Ltd.에서 만듭니다. ※ 본 신상품 98,000원 정장. 사회 초년생, 취준생을 위해 정장값 만들었습니다. manitsuit.com